

2018

여름 제64권 2호

# 성서한국

THE KOREAN BIBLE SOCIETY NEWS



요르단



(재)대한성서공회

# 대한성서공회 성경 기증 프로그램

THE KOREAN BIBLE SOCIETY

성경을 보내는 일, 선교사를 보내는 일입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으로  
한글성경이 번역되고 보급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 한글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성서공회는 현재 150여 개 성서공회들로 구성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와 함께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회와 회원님이 보내주신 헌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 지원

아직도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부족들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첫 번역 성경'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 미자립 성서교회 사역 지원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이유로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합니다.



## 문자교실 & HIV/AIDS 치유 프로그램 지원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자교실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돕고,  
에이즈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보급합니다.



## 국내 성경 지원

국내 미자립교회, 군 장병, 북한이탈주민 등에 성경,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보급합니다.

교회와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헌금은 생명의 말씀을 구하지 못하는 국내와 지구촌 이웃들에게 귀중한 성경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www.bskorea.or.kr](http://www.bskorea.or.kr)

## Contents

- 02 포토에세이  
영혼에 새기는 글자
- 04 2018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 06 커버스토리\_요르단  
아랍권의 복음의 통로, 요르단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 10 2018 상반기 성경보내기 기증 현황  
여러분의 후원으로 93개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12 말씀을 만나다  
돼지
- 14 성경을 받은 사람들  
나이지리아 칼라바리어 첫 번역 성경 봉헌식 현장
- 16 후원교회  
일산광림교회(미안마), 대구경산교회(가나)
- 18 후원자 이야기  
후원회원 초청 '성경 기증 예식'
- 20 성서공회 운동을 위한 기도
- 22 대한성서공회 소식
- 24 매일성경묵상



· 발행인 겸 편집인 : 권의현  
· 발행처 :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 회원문의 : 080-374-3061(수신자부담),  
02-2103-8861~3  
· 편집문의 : 02-2103-8855  
· 성경구입 및 전도지 문의 : 02-2103-8846~7  
· 지로번호 : 7511327  
· 발행일 : 2018년 6월 30일  
· 인쇄인 : (주)타라그래픽스  
· 인쇄처 : (주)타라그래픽스  
· 편 집 : (주)타라그래픽스

\* <http://www.bskorea.or.kr>  
인터넷으로 성경 본문과 성서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의 설립 목적은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를  
번역, 출판, 배포하는 데 있습니다.  
본 대한성서공회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회원국으로서 범세계적인 협조를 통하여 누구나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가 낼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본지는 도서잡지 유통실천 강령을 준수합니다.(비매품)



# 영혼에 새기는 글자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 3:15) ”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오늘도 잠든 아이를 안고 한 자 한 자 글자를 써봅니다. 이제 곧 글을 깨치고 성경을 읽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아이의 영혼에도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될 것입니다.

〈부르키나파소 성경 기반 문자교실〉



“국내외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을  
보고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권현헌 사장

### 국내 성서 보급

금년 상반기에는 지난해 동기간에 비해서 101,957부가 감소한 292,030부의 성경을 보급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개역개정판 성경은 248,492부가 보급되어, 지금까지 본 공회를 통해서 9,709,214부가 보급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내 성경출판사들이 본 공회로부터 개역개정판 본문 사용에 대한 저작권 허락을 받아 출판한 주석성경 11,915,355부를 포함하면, 개역개정판 성경은 총 2천 1백만 부가 넘게 보급되었습니다.

### 해외 성서 보급

금년 상반기에는 81개 나라에 118개 언어로 지난 해 동기간에 비해서 143,860부가 증가한 2,490,063부의 성경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자매 성서공회들로부터 성서 조판을 요청 받아, 마사나어 성경(카메룬)을 비롯하

여 총 16종의 성경을 무료로 조판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미자립성서공회 성서 지원 사업 및 모금 사업

본 공회에서는 세계 성서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지원하는 재정적 인적 지원과는 별도로,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성서공회들에 성경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30개 나라에 260,165부의 성경을 그 나라의 언어로 제작하여 기증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교회와 찬성회원들께서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셔서, 지난해 동기간 보다 약 2억 1천 8백여만 원이 증가한 18억 3천 1백여만 원이 답지하였습니다. 전 세계로 성경을 보내는 운

동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교회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지만 성경이 없어서 교회의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나라 성서공회들로부터 성경 기증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지만 성경 보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교회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 공회에 성경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미얀마는, 변방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어서 그들의 말로 성

경이 번역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한국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 〈새한글 성경전서〉(가칭) 번역 외

2012년 12월,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새한글 성경전서〉(가칭)의 번역을 시작한 이래, 금년 4월 말 기준으로 기초번역이 완료되었으며, 번역 검토 68%, 문장 검토 48%, 기초번역자들의 재검토는 18%가 이루어졌습니다. 새로운 성경 본문 작업 외에도 성경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 그림, 사진, 영상 자료들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 내용은 대한성서공회 제129회 정기이사회에서 보고한 것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 ▶ 한눈으로 보는 2018 상반기 성서사업 보고

### 국내성서 보급



**292,030부**  
제작 보급

### 해외성서 보급



**81개 나라**  
**118개 언어**  
**2,490,063부**  
제작 보급

### 해외성서 기증



**30개 나라**  
**260,165부**  
제작 기증

### 후원금액



2억 1천 8백여만 원 증가  
**18억 3천 1백**여만 원



아랍권의 **복음의 통로**, **요르단**에 성경을 보내주세요.



요르단성서공회에서 개최한 어린이 교회학교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역자들



난민들에게 전달한 아랍어 성경

인구는 약 2%에 불과하다. 소수의 기독교 어린이들도 이슬람 문화가 지배적인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요르단성서공회는 이번 행사에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이 없는 각 교회학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다양한 교육 방법뿐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경을 읽게 하는 방법을 다루었다.

위치



중동 아라비아반도 북부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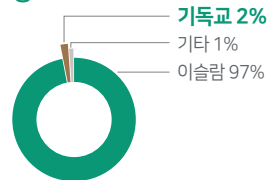
약 1,000만 명

언어



아랍어

종교



2017

년 5월, 요르단성서공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린이 교회학교 사역을 위한 지도자 훈련을 위해 요르단 전역에서 각 교단 약 85명의 사역자들이 모였다. 요르단은 아랍권 국가들 중에서 주변국보다 비교적 복음이 열려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르단 전체 인구 1천만 명 중 기독교

### 요르단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신앙

지배적인 이슬람 문화는 요르단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삶과 신앙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지 못하는 많은 청소년들은 기독교인이었더라도 이 시기에 무슬림이 되거나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무신론자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반한 신앙의 경험을 갖지 못한 데서 비롯한다고 보고, 요르단성서공회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청소년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주고 경험하게 하는 다양한 성경 캠프와 성경 리더십 학교 등을 열어 성경 말씀을 직접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읽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청소년들은 교회와 공동체로 연결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는 리더로 세워지고 있다.



## 소외된 이들에게 성경을 전하며 영혼을 위로하는 사역

이뿐만 아니라 요르단성서공회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요르단 내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의 포용적인 정책으로 인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와 이라크 등으로부터 수많은 난민이 요르단으로 들어오고 있다. 요르단성서공회는 고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충격과 공포로 얼룩진 많은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성경에 기초한 상처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라일라(가명)는 무장 세력에 의해 집이 불탄 이후 남편, 아들과 함께 그녀의 고향을 떠나 요르단 북부에 정착했다. 라일라의 남편은 두 번의 뇌졸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아들은 간염에 걸렸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병원에 갈 수가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라일라는 지금 그 누구보다 밝고 명랑하다. 라일라는 상처 치유 프로그램에서 “고통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 가라”며 용서에 대해 나누었던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라일라는 성경의 많은 구절 중에 시편 127편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다고 말한다. “제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 주님께서 견디셨을 고통과 아픔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고백한다. 고난과 절망 속에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는 그들의 깊은 내면에 스며들어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

요르단뿐만 아니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선교에 있어서 지배적인 이슬람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하지만 이들 성서공회들은 성경을 읽도록



요르단성서공회로부터 성경을 기증받은 난민



요르단으로 건너와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된 라일라

권하고 안내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다양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성서공회들을 통해 전달되는 성경을 읽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고 그 교회들과 성도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이슬람권 성서공회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후원과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 후원문의

요르단에 전달하는 컨테이너 한 대에는 10,000권의 성경이 들어갑니다.

매월 1만 원이면 2명의 요르단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르단에 보내는 성경 컨테이너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080-374-3061(수신자 부담), 02-2103-8861~3



## 여러분의 후원으로 93개 국에 성경을 보냅니다!

• 붉은 글씨 - 지금까지 성경이 발송된 국가 (2018.5.28 기준)



### 아프리카 지역 41개국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 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니제르,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 파소, 상투메,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 유럽 중동 지역 22개국

걸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즈스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 아시아 태평양 지역 8개국

네팔, 라오스,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인도,  
캄보디아, 파키스탄

### 미주 지역 22개국

과테말라, 네덜란드령안틸레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동카리브,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서인도제도,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 돼지

### 관련 구절

|               |                               |
|---------------|-------------------------------|
| 하지르(chazir)   | 레 11:7; 신 14:8; 잠 11:22       |
| 코이로스(choiros) | 마 7:6; 8:30, 31, 32; 막 5장(5회) |
| 후에이오스(hueios) | 1마카 1:47; 2마카 6:18; 7:1       |
| 후스(hus)       | 벧후 2:22                       |

### 이름에 대한 논의

히브리어 '하지르'는 집돼지와 야생 돼지를 가리킨다.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약 2500년 이전에 집돼지를 키웠으며, 비슷한 시기에 가나안에서도 돼지를 사육했을 것이다. 야생 돼지를 가축으로 길들이는 일은 전 세계 어디서나 농업의 발달과 함께 일어났다. 커다란 울타리 안에 야생 돼지를 가둔 채로 남은 음식물을 먹여서 키웠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농경지로부터 분리해 놓았을 것이다. 야생 돼지가 완전히 가축이 되었을 때에는 울타리에 가두기보다 방목하는 것이 더 일상적이었다. 돼지는 무엇이든 잘 먹어서 방목할 경우 별도의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되었다. 돼지는 주둥이로 땅을 파는 습성이 있어서 나무뿌리나 덩불을 없앨 수 있었고, 이로써 풀들이 자라



도록 돕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따라서 옛날 돼지치기들은 밭에서 떨어진, 방목을 위한 목초 예정지로 돼지들을 몰고 갔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동물인 돼지를 식용 목적으로는 키우지 않았고, 목초지 개간이나 이웃 부족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사육했다. 야생 돼지는 '유럽멧돼지'인데 한때 이스라엘, 특히 요르단 골짜기에 많이 서식했다. 유대인이나 이슬람교도 모두 야생 돼지를 먹지도 않고 사냥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돼지들은 오늘날에도 요르단 골짜기를 비롯하여 물이 있고 뾰뾰한 덩불이 우거진 지역에 두루 서식하고 있다.

### 모양

성서 시대의 집돼지는 현대의 품종보다 훨씬 더 야생 돼지에 가깝게 생겼다. 이 돼지는 갈색이나 회색빛을 띠었고 털이 많았을 것이다. 새끼들은 아마 가로 줄무늬가 있었을 것이다.

### 특별한 의미나 상징

돼지는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다.

### 번역

집돼지와 야생 돼지를 구분하는 언어권이라면, 시 80:13에서는 야생 돼지를 가리키는 말로 번역해야 한다. 벧후 2:22에서 사용된 그리스어는 암돼지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사실상 돼지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 본문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많은 성경들은 "돼지"로만 번역하고 있다. 시 68:30에서 "갈밭의 들짐승"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는 야생 돼지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며, "갈대밭의 야생 돼지"라고 번역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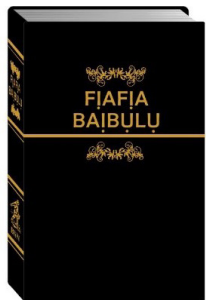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 Living Things in the Bible, by Edward R. Hope (UBS, 2005) 중에서 (번역: 양재훈)



## 나이지리아 칼라바리어 첫 번역 성경 봉헌식 현장



칼라바리어 첫 번역 성경을 부족 대표에게 전달하는 나이지리아성서공회 이사장



칼라바리어 첫 번역 성경

대한성서공회 성경보내기운동 회원들의 후원을 통해 나이지리아의 소수민족을 위한 칼라바리어 첫 번역 성경이 제작되었다. 지난 3월 나이지리아에 도착하여 수백 명의 칼라바리족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역 성경 봉헌식이 열렸다. 칼라바리어 성경번역위원회에서 10년간 봉사한 칼라도쿠 보는 “오늘은 칼라바리인인 저에게 가장 기쁘고 감격적인 날입니다. 이제 모든 칼라바리 사람들이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칼라바리 부족 대표는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아내와 족장들과 함께 칼라바리어 첫 번역 성경 봉헌식에 참석하여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이 성경이 칼라바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칼라바리어를 보존하고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봉헌식에 참석한 다양한 교단의 지도자들은 칼라바리어 첫 번역 성경이 칼라바리 사람들의 단결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희망을 표현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칼라바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약 25만 8천여 명이다. 칼라바리어 성경 번역은 1965년에 시작되었고 신약과 시편 번역은 2003년에 완성되었다. 어렵게 성경 번역이 완성되었지만 이 성경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이지리아성서공회는 이 성경의 제작 지원을 본 공회에 요청해왔고 후원회원들의 정성을 통해 지원할 수 있었다. 봉헌식이 한 달 정도 지난 4월 말 첫 제작한 5,200 부의 성경 중 이미 3,800부가 배포되었다.

칼라바리어 첫 번역 성경이 칼라바리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이를 통해 칼라바리 사람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칼라바리 부족 대표



칼라바리어 첫 번역 성경 봉헌식 찬양대



일산광림교회의 후원으로

**미얀마에 레미어 신약 3,100부**를 보냈습니다.



봉헌식에 참석한 레미 부족과 일산광림교회 성도들



성경을 받고 기뻐하는 레미 부족 사람들

2018년 4월 24일, 미얀마 양곤의 성삼위일체 교회에서 일산광림교회(박동찬 목사)의 후원으로 미얀마 레미 부족을 위한 레미어 첫 번역 신약성경이 봉헌되었다. 이날 봉헌식에 참여한 미얀마교회 지도자들과 레미 부족은 레미 부족의 모국어로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 출간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인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미 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으며, 영어 알파벳을 기초로 레미 글자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버마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지만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다. 처음에는 일부 복음서가 번역되었으나, 본격적으로 2002년부터 신약 번역 작업이 시작되어 2017년에 번역 작업이 완료되었다.

일산광림교회(박동찬 목사)의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레미어 신약 번역과 3,100부의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본 공회에서 제작된 신약성경은 미얀마성서공회를 통하여 레미 부족에게 전달되었다.

이번에 번역 출간된 레미어 신약성경은 레미 부족들에게 복음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산중앙교회의 후원으로

**가나에 성경 15,250부**를 보냈습니다.



김종원 목사(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가나 오돈코 총무(오른쪽)



2017년, 대구 경산중앙교회(김종원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전 교인이 '성경필사'와 '가나에 성경 보내기 운동'을 위한 헌금에 참여하였다. 가나성서공회 에라스무스 오돈코 총무는 직접 경산중앙교회를 방문하여 가나의 성서 보급을 위한 헌신에 감사를 드렸다.

가나의 전체 인구 2,630만여 명 중, 50%가 15~35세 젊은이들이며, 이들은 가정 폭력과 빈곤 그리고 마약에 노출되어 있어서 가나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가나성서공회는 2016년부터 성경을 구입할 수 없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오돈코 총무는 "기증받는 성경으로 우리는 여러 사람들, 특히 학교에 다니지만 성경을 구할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성경 반포는 수많은 가나의 젊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변화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라며 성경 보급 계획을 전했다.

경산중앙교회의 후원으로 제작되는 성경은 7월 중에 가나에 발송될 예정이다. ㉠



## 후원회원 초청 '성경 기증 예식'



성경 기증 예식에 참석한 후원회원들

성경 제작과 보급에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성서공회에 대한 성서 기증 사업이 지난 2008년 시작된 이래로 한국 교회와 후원회원들의 후원이 계속 증가하여, 금년 상반기에 1,340개 교회와 29,272명의 회원들께서 참여하였다.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공회에서는 금년 3월 본 공회 반포센터(경기도 용인)에서 후원회원 초청 '성경 기증 예식'을 개최하였다.

해외 성경 보내기 운동을 헌신적으로 후원해 온 후원회원들은 해외 성서 기증 사업에 대한 현황을 소개받고, 기증된 다양한 언어의 성경을 직접 보며, 해외에 기증하는 성경이 컨테이너에 실리는 현장을 참관하였다. 때마침 로스기념관에서 진행된 성경 출판 이론과 실무 교육에 참석한 21개 성서공회들의 총무와 직원들이 행사에 참석하여 후원자들과 교제하며, 기증되는 성경을 받게 될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그 후, 후원자들은 성경 제본 시설인 <바이블코리아>를 방문하여 세계 각 나라의 다양한 언어와 형태로 성경이 제작되는 전 과정을 견학하였다.



- ① 해외 성서 기증 사업에 대한 현황 소개
- ② 기증되는 성경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후원회원과 해외성서공회 직원들
- ③ 바이블코리아를 방문하여 성경이 제작되는 현장을 참관하는 후원회원들
- ④ 후원 성경이 선적 전에 보관되고 있는 반포센터를 소개하고 있는 권익현 사장



이번 행사는 해외 성서 기증 사업에 대하여 지면으로만 보고를 받던 후원회원들이 자신들의 후원으로 기증된 성서와 그 성서가 제작되는 현장을 보고, 세계 각 성서공회 총무 및 직원들로부터 직접 감사 인사를 받으며 후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다. 행사 후 후원회원들은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고, 일부 회원들은 후원 규모를 늘렸다. 지방에서 올라온 한 회원은 초청 행사를 마칠 즈음에 해외 성경 보내기에 사용해 달라고 현금 500만원을 기탁하기도 하였다. 본 공회는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후원회원들에게 해외 성경 기증 사업 현황과 시설들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이 사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 ● ● 스와질란드



스와질란드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농아인입니다. 성서공회는 이들을 위해 수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25개의 성경이 야기를 수어로 번역하였고 많은 농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수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스와질란드의 농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경을 통해 잘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 ● 말라위



말라위에서는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이 엘롬웨(Elomwe)어를 사용하며 이들 중에는 노동자나 난민, 또는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 삶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습니다. 2014년 신약전서가 봉헌된 이후 모국어인 첫 번역 성경전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롬웨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신앙

이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또한 엘롬웨어 성경으로 진행되는 성서공회 문자교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 과테말라



새롭게 번역하여 봉헌된 포콰치어 성경이 많은 가정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7만 명의 포콰치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번 성경은 특별히 포콰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콰치어 성경을 받은 9살 베로니카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혼자서도 읽을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받은 포콰치 가정마다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 가정들로 인해 이 부족이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제12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다

대한성서공회 제129회 정기이사회가 2018년 5월 29일(화), 오전 10시 30분에 서초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가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다.



제129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에서 성서사업을 보고하는 권익현 사장

2부 회무처리에서는 권익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업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김재곤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조성봉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의 이사 선임이 있었다. 신 임원으로 이사장에 김현배 목사, 부이사장에 김동권 목사, 서기에 김경원 목사, 회계에 이선균 목사가 선임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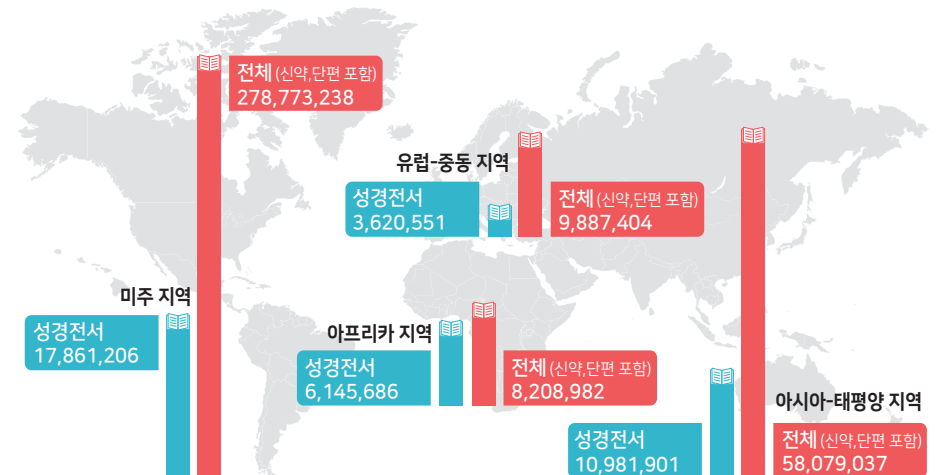


제129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이사회 전경

실행위원회에는 양병희 목사, 손인웅 목사, 정하봉 목사, 김순권 목사, 이정익 목사, 이용호 목사가 선임되었다. 그리고 권익현 사장을 재선임 하였으며, 호재민 총무를 선임하였다.🌐

## 2017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분쟁 지역에 성경 반포가 급증하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17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전 세계에 성경전서 약 3,860만 부가 반포되었으며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5천 4백만여 부의 성서가 반포되었다.



성경전서 38,609,344부를 포함하여 총 354,948,660부 반포

출처 : 2017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Scriptures Distribution Report 2017), 세계성서공회 연합회

### 인터넷을 통한 성경 반포

2017년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의해 반포된 성경 중 2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반포되었으며 주로 웹 사이트와 유버전(YouVersion)과 같은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운로드되었다. 성경 다운로드가 성서공회에 의해 별도로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온라인을 통한 반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분쟁 지역에 반포된 성경

남수단에서는 내전이 시작되기 1년 전만 해도 성서공회를 통해 반포된 성경은 약 6,000권 남짓이었으나, 2013년 12월에 내전이 시작된 이래로 25만 권 이상의 성경이 반포되었다.

한편, 2011년에 분쟁이 발생한 이래로 지난해 시리아에서만 20만 권의 성경이 반포되었다. 시리아에 있는 성서공회 담당자는 지난 7년의 전쟁 기간에도 알레포시 서점은 거의 매일 열려 있었으며, 지난 성탄절 기간에 특별 성경 반포 행사도 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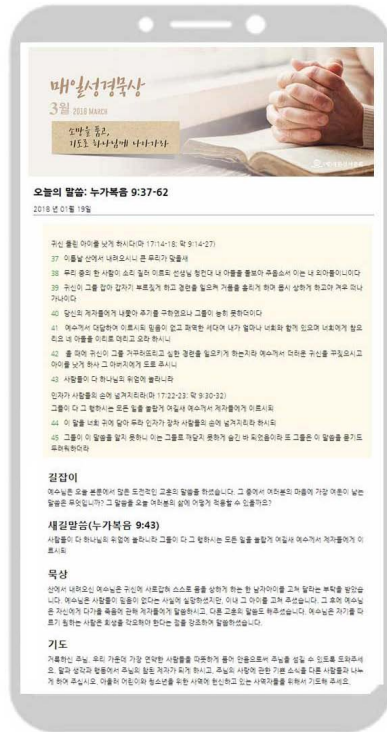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평안과 위로를 얻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효과적으로 반포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자, 대한성서공회에서는 이메일로 말씀을 보내드리는 매일성경묵상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매일성경묵상은 매달 주제별로 구성된 성경 구절과 함께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 이에 대한 짧은 묵상, 그리고 기도문을 제공하여, 하나님의 말씀따라 하루하루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매일성경묵상 구성>

- 오늘의 말씀:**  
매일 묵상할 성경 구절
- 길잡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배경 설명
- 새길 말씀:**  
오늘의 말씀 중 핵심 구절
- 묵상:**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하여 새겨야 할 부분
- 기도:**  
말씀 묵상 후 기도제목

### 신청 안내

매일성경묵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bible@bskorea.or.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신청 1~2일후부터 매일 이메일로 매일성경묵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성경 보내기(문서 선교)' 후원회원 신청서

|      |      |                  |         |
|------|------|------------------|---------|
| 신청인  | 교회명  |                  | 교회직분    |
| 집전화  | 휴대전화 |                  |         |
| 주소   |      |                  |         |
| 약정금액 | 매월   | 원(성경 권)          | 이메일     |
|      | 매월   | 100,000원(성경 20권) | 이체일     |
|      | 매월   | 50,000원(성경 10권)  | 은행명     |
|      | 매월   | 20,000원(성경 4권)   | 예금주명    |
|      | 매월   | 10,000원(성경 2권)   | 예금주생년월일 |

소식지 이메일 요청

이체일: ☐ 매월 5일 ☐ 매월 15일 ☐ 매월 25일 (잔고부족 등의 이유로 미출금시 2회에 한해 재출금 됩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증 상의 생년월일 (법인인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신청인(예금주)은 대한성서공회의 선교사업에 후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효성에프엠에스(주)의 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동의함에 꼭 체크해주세요!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금주: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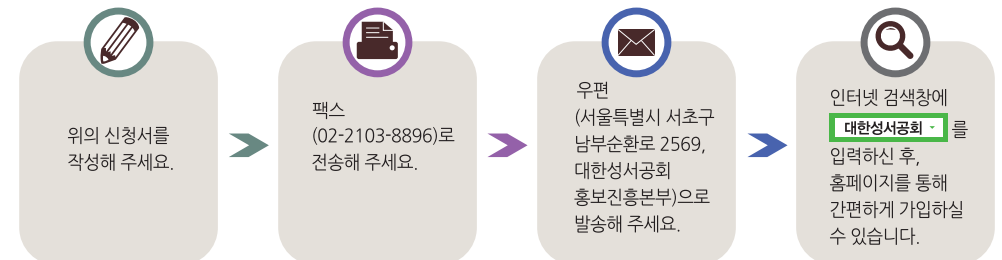
## 매일 전하는 성경,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해주세요!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합니다.
- 자동이체 등록시, 효성에프엠에스(전자결제 서비스 제공 기관)와 금융기관에서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예금주[납부자]의 연락처 확인 불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 효성에프엠에스(주), 금융기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efnc.co.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성서한국'을 e-mail로 받아보시면 발송비용을 절약하여 더 많은 이웃들에게 성경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374-3061 (수신자 부담), 02-2103-8861~3





대한성서공회



좋아요

대한성서공회

검색

성경 지식을 활용하세요!

##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전해주세요!

가나에 사는 17살 다이나(가명)는 엄마와 두 동생과 함께 삽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과 외로움으로 자살까지 생각했던 다이나. 친구들을 통해 알코올, 마약, 매춘 등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지만 다이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청소년들이 가난과 수많은 사회 문제 앞에서 이들을 지켜줄 울타리 없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이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아프리카 청소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전해주세요!

10만 원을 헌금하시면 20명의 청소년들에게,

1만 원을 헌금하시면 2명의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